

##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 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개역, 누가복음 19:1-10]

**기**대하지 않았고 상상도 하지 않았던 놀라운 선물을 간단히 말하면 뭐가 될까요? 황재랍니다. 초등부 아이들에게 이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제목을 '삭개오의 황재'라고 했습니다. 삭개오에게 일어난 이 일은 황재가 틀림없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상품은 별로 크진 않죠? 제가 부임하고 얼마 안돼서 성경퀴즈대회를 하는데 1등 상이 꽤 컸어요. 대형선풍기였거든요. 우리교회는 상이 굉장히 크다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원래 그게 일등 상이 아니었습니다. 상품 사려고 메가마켓에 갔다가 영수증이 경품 추첨에 걸려서 대형선풍기 하나가 따라 온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되었지만 결국 1등 상품이 대형 선풍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지요. 그 때 물건 사러 갔던 분 누구예요? 원용대 집사님이시지요? 앞으로 퀴즈대회 있거들랑 상품은 전부 원용대 집사님더러 사오시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황재 축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 바랄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황재라고 하려면 한꺼번에 40억 복권에 당첨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IMF 이후에 고생하면서 단칸방에 가난하게 살던 젊은 사람이 복권에 40억 당첨이 됐답니다. 누가 그걸 보더니 "아 너무하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세금을 10억 가까이 떼어버렸네" 하더라고요. "40억에 10억을 떼고 30억의 절반만 쥐도 좋겠다 그런 소리하지 마라." 고생하던 사람이 그 정도 복권 당첨이면 황재라고 할만합니까? 반응이 시원찮은 것을 보면 통이 큰 건지 아니면 30억이 감이 안 잡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황재 중의 황재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황재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불쌍하게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황재는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을 보면 삭개오는 대단한 황재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저 준 것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 공짜로 받은 겁니까? 로마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일하지 않고 샅을 받은 거라고 말합니다. 일하지 않고 받은 봉급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더러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는 얘기거든요. 공짜데 뭘 그렇게 열심히 찾고 두들기고 해요? 우리의 구원이 은혜요 선물이요 공짜로 주어진 것이고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노력해서 찾으라, 구하라, 노력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문제를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을 봅시다.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 내려 오셔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엔 뭣하러 가시나요?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제자들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내려옵니다. 여리고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으니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지나가시려는데 삭개오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란 말은 히브리어 '차카이'에서 나온 것입니다. 외우기도 좋아요. '차카이?' 착한 사람입니다. 이름으로 보아서 이스라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세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로 취급받았습니다. 일제 시대에 일본 순사들 앞잡이 노릇했던 한국인들이 세리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리장이었으니까 대단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찍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더구나 예리고라는 곳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표현을 빌린다면 목이 좋은 곳입니다. 예리고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예루살렘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에 해당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 세리장은 세리장 중에서도 상당히 요직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삭개오가 부자가 된 과정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였으니까 으레껏 토색, 즉 가난한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아서 일부를 상납하고 일부를 착복해서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의할 수 없는 것이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삭개오의 말과 연결이 안됩니다.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산의 절반만 남는데 삭개오의 재산이 전부 토색해서 빼앗은 것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것의 4배를 갚을 재간이 없습니다. 자기 재산 전부를 가지고도 4배를 못 갚을 건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떼어주고 남은 것으로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의 재산이 그렇게 해서 모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삭개오가 완전히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삭개오의 특징 중의 하나는 키가 작은 겁니다. 키가 작다는 것이 사람에게 불행입니까? 다행입니까? 키가 너무 작으면 곤란하겠지만 키 작은 사람들이 다부지다는 인상을 줍니다. 한국의 토종밤도 조그마한 것이 단단하고 맛이 좋아요. 키 크고 희멀건 사람이 많잖아요. 작은 사람은 야물고 다부진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키 크고 싱거운 사람보다 작지만 단단한 사람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키가 작음에도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면 그 자체만으로 불리하다고 말하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키 작으면서 다부진 것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박정희 대통령도 있고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강감찬 장군도 있습니다. 나폴레옹도 키가 아주 작았다고 합니다. 삭개오도 키는 작았지만 적극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한 번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분인가 하고 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은 것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 아, 미리 앞질러 가서 나무에 올라가면 볼 수 있겠구나,”란 생각을 합니다. 명색이 세리장입니다.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있는 그가 작달만한 키에 많은 무리를 헤집고 빠져나가서 앞으로 달려나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체면을 생각하면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달려갔습니다. 지위를 생각지 않고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는 7절에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라고 말하죠. 일반적인 평가는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세리장이요, 재산도 많았지만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삭개오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지만 죄인이라고 따돌림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온 예수님께서 그 곳에 이르러 **우러러 보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밖에 안 하셨는데 삭개오의 반응이 너무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한 마디 말씀에 삭개오가 이렇게 변해버린 이유가 뭘까요? 삭개오가 어디에 놀랐을 것 같습니까? 삭개오는 비록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 살고 있었지만 나름대로는 “내가 비록 이러고 있지만은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무언가 간절한 소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 번 뵈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삭개오의 소원은 예수님을 한 번 바라보는 것 뿐입니다. 어떤 분이신지 한번이라도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에게 오시더니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거기서 뭐하느냐?” 아니면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첫 마디가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부른 겁니다. 이것이 삭개오에게 얼마나 충격을 줬을까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났을 때에 이 여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수가성 여인은 예수

님을 메시아로 혹은 위대한 선생님이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이 여인의 마음이 변화죠? “네 남편을 데려 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네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라’는 이 말씀에 이 여인의 태도가 완전히 변해 버립니다. 자신을 알 리가 없는 그 분이 자신을 보고 ‘삭개오야’ 하는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확 변해버렸을 겁니다. 삭개오를 감동시킨 것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제대로 된 유대인이라면 삭개오의 집에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즘 말로, 왕따보다 더 심합니다. 버림받은, 저주받은 그에게 위대한 선생님이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삭개오에게 어느 정도 충격을 줬는지 우리로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삭개오의 반응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 짐작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나름대로 한이 맺힌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삭개오의 생애에 있어서 목표는 돈과 지위라고 볼 수 있겠죠. 어쩌면 온갖 욕을 다 먹어가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했을 테고 또 세리장이라는 자리를 얻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욕을 다 먹어가면서도 그 지위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과 지위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다니...

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돈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벌 수 있으면 최대한 벌어야 합니다. 아낄 수 있으면 최대한 아껴야 합니다. 그래서 잘 써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할 이유입니다. 벌 수 있으면 최대한 벌어야 합니다. 지위는 어떻습니까? 올라갈 수 있으면 최대한 올라가야 합니다. 가능하면 좋은 자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높은 지위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 것이 없는 것보다 복음을 위해서도 훨씬 유용합니다. 돈이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 개인적인 욕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의 수중에 들어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수중에 많이 들어있는 것이 오히려 유용합니다. 그래서 벌 수 있다면 최대한 벌어야 하고 지위도 올라갈 수 있는 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돈과 지위란 것이 그 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열심히 노력하면 충족이 되더라도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없는 사람에게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채워지고 나면 힘이 없는 것이 돈과 지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저 집 같으면 걱정없이 참 잘 살겠다.” 싶은 사람 있거든 어떻게든지 알아보십시오. 돈이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옛날에 마누라 자랑하면서 총각들 잘 놀리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냈던 분이데 하루는 제가 못된 소리를 했죠. “선생님, 벌써 연세가 50이 다 되어 가시는데 사모님 자랑하면서 총각들 놀리시지만 사모님이 총각들 놀리는 경우 외에는 별로 쓸모가 없죠?” 이 선생님이 멍하니 쳐다보더니만 다시는 안 놀려요. 제가 그 집을 잘 알거든요. 이 분이 밖에 나와서 총각들 놀리면서 사모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지만 두 분 사이가 그렇게 다정하지 않아요. 집에 가면 잘못했다고 벌을 많이 서는 분입니다. 그런데 총각들 앞에서는 얼마나 빠기는지 몰라요.

결혼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좋은 게 얼마나 갑니까? 결혼할 때보다 10년 20년 흐른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고 더 기쁜 것이 정상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좋아서 결혼하고 몇 해 지나면 미혼자에게 으시대는 일 외에는 별로 도움이 안되는 부부가 많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돈이나 지위란 것이 없는 사람에겐 대단한 것이지만 어느 정도 가진 사람에게는 별로 위력이 없습니다. 참된 행복과 만족을 위한 기초로서 돈이나 지위는 튼튼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노력하십시오. 좋은 곳에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삭개오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애 목표였던 그것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내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

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삭개오가 구원을 얻었다는 선언입니다.

삭개오가 원했던 것은 저 유명한 선생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보자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뛰어갔고 체면 불구하고 나무에 올라갔죠.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건 뭘니까?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의 구원을 얻은 겁니다. 예수님 한 번 보기를 원했던 삭개오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이걸 결코 황재같지 않죠? 차라리 복권 40억 당첨되는 건 황재 같은데 이걸 별로 황재 같지 않죠? 아닙니다. 이걸 놀라운 황재입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삭개오가 받은 구원은 분명히 선물입니다. 삭개오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구원을 얻겠다는 생각으로 뛰어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해야겠다고 뛰어간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서는 여리고를 통과해서 십자가에 달리려고 가시는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러 가겠다고 뛰어간 건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한 번 보거나 해야겠다고 뛰어갔던 그에게 돌아온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예상하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분이 나를 알아보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하고 받아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복이 삭개오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처음 나올 때 뭘 바라고 나오셨습니까? 아니 지금 이 시간에 나올 때에도 혹시 내가 교회 가면 뭘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바라고 나오셨습니까? 얼떨결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처음부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에 그들이 바랬던 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나오시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알고 보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복이 정말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교회로 나왔건, 예수를 만나러 나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애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큰 복을 장차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한 예를 들어봅시다. 한나가 울며불며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을 달라는 거였죠. 아들을 달라고 울며불며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울며불며 기도했던 그녀가 나중에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아들 하나를 얻고 난 다음에 하는 그 기도를 꼭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에 있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울고불고 했던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놀라운 기도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이사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사든지 낮추사든지 죽이사든지 살리사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나는 그로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한나가 기도한 것은 아들 달라는 기도 아니었습니까? 그럼 아들 하나 얻었으면 그 아들을 안고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소원했던 아들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하고 감사헌금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한나는 아들을 얻었지만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들 하나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매달렸던 그녀가 얻은 것은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따라 오라 할 때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이걸 버리면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따라갔습니다.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다. 왕이 될 거라고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토록 소망했던 것이 깨끗이 무너지는 듯했는데 얼마 후에 그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불쌍해요. 한 사람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다 순교했는데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고 하시더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왔습니다. 불쌍하지요? 나중에 만날 기회가 있거든 베드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죽을 때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물어보시면 뭐라고 답할까요?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죽었어도 그것이 고생으로 여겨지지 않을 만한 행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처참한 죽음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감사할 만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기쁨은 남이 모릅니다.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고생, 고생하며 살았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온갖 고생을 다 하며 살았음에도 남에게 비할 수 없는 기쁨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체포되어 묶였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묶여서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만 빼고,” 뭐요? 나의 묶인 것만 빼고, “모두가 나와 갇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 보셨어요? 제자들이 불쌍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큰 기쁨을 얻어서 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나누어 주어도 그것보다 더한 기쁨이 삭개오에게 찾아온 겁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쁨이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것이 황제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떤 분이 하루벌이라도 하려고 새벽에 장터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데리고 가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 힘있는 사람은 먼저 팔려가고 아무도 그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점심 때를 넘습니다. 오후가 넘어갑니다. 오늘 일당이라도 벌어가야 식구들이 밥을 먹을텐데... 벌써 해는 넘어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그 때 웬 사장님이 나타나셔서 지금이라도 일하러 갈테냐? 그래서 따라갑니다. 일은 한 시간밖에 못했어요. 한 시간 해봐야 얼마 주겠냐 싶은 심정으로 일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일을 마칠 때 사장님이 일당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공사관에 일당 얼마 주나요? 한 오만원 줍니까? 그런데 자기를 먼저 부르더니 오만원 일당을 준 겁니다. 이게 황제입니다. 이런 사장님 보셨어요? 이런 사장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부터 일꾼을 못 구합니다. 아침 일찍 가도 아무도 없어요. 전부 오후 늦게 나오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국은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은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잘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서 주시는 것이며 우리가 도저히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이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은 원래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삭개오가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기억할 것은 이런 복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복이 구하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삭개오가 한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한 번 보려고 했던 것 뿐입니다. 한번 보려고 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요구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복을 주었습니다. 삭개오를 보면 참 성격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안 그래요. 전 줄서는 것을 참으로 싫어합니다. 줄이 길면 차라리 안 먹고 말지 뭐 저렇게 서? 줄 안 쉽니다. 줄이 길면 아예 밥 먹을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한 번 볼까 싶은데 사람이 많네? 그럼 말지, 뭐 꼭 봐야 되나? 이런 제게 예수님께서 일찍이 찾아오셔서 일찍 예수를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상황이 삭개오의 처지 같았으면 저는 예수님을 못 봤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삭개오는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놀라운 복을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쓰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라는 이 말씀은 구하고 두드리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주어지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하고 찾는 이에게 주어집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죠?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구요? 그러면 천국은 굉장히 약한 곳이네요? 쳐들어가면 누구나 차지할 수 있다면 천국은 굉장히 허약한 곳 아닙니까? 천국이 허약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천국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줄까 하는데, 침노하는 품이라도 잡는 그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누가 채워요?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입을 여는 것은 내가 해야 합니다. 입 안 여는데 벌리고 집어넣지는 않는다는 얘깁니다. 입 벌렸기 때문에 가득 찬 거죠? 아니요!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입은 우리가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흥해가 왜 갈라졌습니까? 누구의 능력이죠? 흥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졌어요? 모세는 뭐했어요? 소리질렀어요? 막대기 가지고 쳤어요? 나중에 본문을 잘 보십시오. 흥해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내밀었는지 저렇게 내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좌우간 손을 내민 것은 모세입니다. 손을 안 내밀어도 흥해가 갈라졌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모세가 손을 흥해 위로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흥해가 갈라지리라는 거예요. 흥해는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스 겁니다. 어떨 때요?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것이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불러서 쓰십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 때문에 일이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 구절을 아주 좋아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비록 늦게 되었지만 먼저 되리라고 믿고 노력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미 훨씬 먼저 믿은 부인보다 앞섰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도사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답은 안 했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중 된 자가 어떻게 먼저 됩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나중 된 자에게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늦게 된 것 때문도 아니고, 내 노력 때문에도 아닙니다. 내게 갈급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기 때문에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도 먼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먼저 된 제게 더 갈급함이 있습니다. 자기만 열심인가요? 먼저 된 내가 얼마나 열심인지 잘 모르고 전도사님을 추월하겠다는 것은 과욕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 행복합니다. 절 넘어가려고 노력하는 분이 있다는 게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후 늦게 한 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을 다 받은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오늘 우리 식구들 다 굶어야 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던 그에게 일당이 다 주어졌습니다. 이걸 받고 돌아가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누가 고마웠을까요? 주인님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런데 가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 그나마 그 일당을 받게 된 것은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종일 장터에서 기다렸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그나마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부지런히 출석하고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했기 때문에 내가 이 구원을 받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꼭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이 그나마 내가 노력한 게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냐? 설령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셔도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노력에 비해서 주어진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보겠다고 달려가고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이 놀라운 복을 받은 것 아니냐?” 삭개오는 결단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놀라운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복이 주어집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삭개오의 삶이 크게 변해 버렸습니다. 정말 크게 변했습니다. 어찌면 돈이 그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목표였을텐데 그것을 절반씩이나 잘라내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씩이나 갚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가 재산이 참 많았습니까? 그렇다고 부자는 아닙니다. 언제부터 삭개오가 진짜 부자인지 아세요?

용흥동 우방아파트가 들어서고 사람들이 그리로 이사가는 것이 꿈이던 시절에 제 친구가 우유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돈깨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집집마다 우유먹으라고 권했는데 우유 못 먹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아니 이 좋은 집에 살면서 왜 우유도 하나 못 먹어요?” 답이 될지 아세요? “집 사는데 돈 다 넣어버리고 지금 우유 먹을 형편이 안돼요.”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그 아파트 사는데 다 넣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부금 갚아야죠, 이자 갚아야죠. 우유도 못 먹는 거예요. 하, 세상에 별일 다 있다. 그 으리으리하고 번쩍번쩍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아니에요. 우유도 제대로 못 먹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부자인지? 좋은 집과 많은 땅을 지니고 우유도 못 먹는 사람? 부자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부동산 부자는 차라리 가난합니다. 부동산 부자는 땅을 많이 가져서 재산은 수억인데 쓸 돈이 없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심지어, 세금도 못 내서 땅을 잘라서 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참 가난한 사람입니다. 누가 부자인지?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잘 쓰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가 재산이 많았지만 움켜쥐고 앉아 있을 때는 부자가 아닙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있을 때는 부자가 아닙니다. 이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고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게 부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보다 수십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누지 못하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꽃동네에 현금을 했대요. 얼마요? 천원? 계속 보낸 것도 아니고 한 번 보냈나요? 거기 에다 가면 제가 얼마나 부자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천원이 뭐예요? 천원이! 정말 가난한 사람입니다. 남을 위해서 내어 줄 것이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삭개오의 가치관이 변해버린 겁니다. 날마다 돈, 돈 하며 돈의 노예가 되어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행복이 빌려오니까 돈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상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현금을 많이 하고 또 재산을 많이 떼어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깝거든 주지 마세요. 아까운 돈 자꾸 나누어주면 그것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아깝거든 남을 위해서 많이 쓰지 마세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 주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더러 누가 내 놓으라고 해서 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고 나니까 저절로 그러고 싶더라는 얘깁니다.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좋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그렇게 죽으라고 그래서 죽었나요? 자원일까요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그렇게 죽었을까요? 자원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그 길을 갔습니다. 사도바울은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학력, 재력, 남에게 결코 밀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누리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보니까 버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누리는 행복은 그만큼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행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정돈을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복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이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도 소중한 것이며 복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대답은 예수님이 잃은 자를 찾으러 다니셨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아무리 열심이 있다 해도 예수님이 찾지 않으면 그 열심이 아

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외형상으로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러 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찾아오셨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담의 범죄 이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훨씬 더 많은 일을 먼저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